東大新聞

發行人 黃 壽 永
編輯人 朴 先 榮
印刷人 鄭 九 鎬

主幹 權 奇 椋
編輯局長 申 寬 浩
編輯部長 張 義 植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2)8131~9
本社直通 (2)8577

慶州大學
주소 : 경북월성군현곡면
금장리707(681)
전화 : 경주2—0131~6

每週 火曜日發行

東國人 등산대회 盛了

4·19기념일환 3백50개팀 참가

최우수상, ROTC B팀 차지

농무현상 결쳐 山行에

4·19기념「제15회 동국인등산대회」가 지난달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총 3백50개팀,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산 일원에서 열려 ROTC B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동국인의 체력향상과 교직원·학생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협동하는 전통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이번 대회는 절골청수장을 출발, 보국문, 태고사지, 깔딱고개, 도선사에 이르는 약12㎞의 코스에서 펼쳐졌다.

이날 대회는 봄비에 농무현상까지 겹쳐 山行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산행길에 표지판도 설치되지 않는등 불편상을 드러냈다.

이날 등행을 마친 참가자들은 도선사일주 광장에 모여 식사위원들이 종합채점을 하는 동안 장기자랑을 가졌는데 서도회팀 김판규군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어 시상식을 끝으로 등산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는데 등외코스가 험해 참가팀 대부분이 곤욕을 치렀다.

이번 대회의 수상팀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ROTC B팀 (재학생부)

◇특별상=영영학과 A팀 (재학생부)

◇우수상▲국교과 A팀 (재학부) ▲경영대학원 23기C팀 (동문부) ▲동우회A팀 (써클부) ▲관재과 (직원부) ▲전산원1팀 (동원학원부)

◇자연보호상 ▲전산원3팀 (동원학원부) ▲도서관팀 (교직원부) ▲일문과0팀 (재학생부) ▲서도회1팀 (써클부) ▲행정대학원33기팀 (동문부)

▲지난달 28日 북한산 일원서 열린「동국인 등산대회」에서 山行하는 학생들.

경주대 3個學科로 분리

지난달 26日 문교부에 認可신청

文理大·法經大·漢醫大로

慶州大學 편제가 85학년도 1학기부터 3개단과대학으로 분리, 운영될 전망이다.

기획조정실에따르면 이 개편안은 경주대를 文理科大學·法經大學·漢醫科大學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지난달26일 문교부에 인가신청을 냈다. 이에대한 인가 여부는 늦어도 오는 9월말까지 문교부에서 확정하게 된다.

한편 경주대가 3개단과대학으로 편제될 경우 지금까지의 단대성격에서 「경주캠퍼스(가칭)」로 불리워지게 되며, 「경주캠퍼스 책임자의 호칭문제는 아직 미정이다.

문교부에 인가 신청한 3개 단대별 소속학과는 다음과 같다.

◇文理科 대학=11개학과(6백70명) ▲불교미술학과(40명) ▲국어국문학과(1백명) ▲영어영문학과(1백30명) ▲일어일문학과(50명) ▲중어중문학과(40명) ▲국사학과(90명) ▲한문학과(40명) ▲고고미술사학과(40명) ▲수학교육과(40명) ▲가정교육과(40명)

◇法經 대학=7개학과(5백10명) ▲법학과(60명) ▲행정학과(60명) ▲경제학과(90명) ▲무역학과(85명) ▲경영학과(90명) ▲회계학과(85명) ▲관광경영학과(40명)

◇漢醫科 대학=1개학과(80명) ▲한의예과=한의학과(80명) (괄호안은 졸업정원)

<관련기사 3面>

總長旗 고교농구 熱戰돌입

전년도覇者 松都高 첫승리

金泰雨·金光善군 LA파견 최종선발

본교 레스링부 金泰雨(체교3)군과 복싱부 金光善(건축2)군이 LA올림픽파견 국가대표선수로 최종 확정됐다.

레스링의 金군(자유형 미들급)은 지난달 17·18일 양일간 문화체육관에서 벌어진 LA파견최종선발전에서 백현명(주택공사) 송준영(목포대)군을 차례로 물리쳐 국가대표선수로 뽑혔다.

복싱의 金군(라이트플라이급)은 지난 3월8일부터 장충체육관에서거행된 LA올림픽파견 아마복싱 최종선발전에서우승,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었었다.

한편 김판선군은 지난 1일부터 LA현지에서 전지훈련을 갖고 있으며 김태우군도 오는 20일부터 20일간 일본 동경에서 일본대표선수와 전지훈련경 친선경기를 갖게 된다.

▲총장기쟁탈 고교농구대회가 지난달28일개막, 열전 7日간에 들어갔다. (사진은 대전고對휘문대부고 경기장면)

「東國祝典」난항거듭

학회비지원時, 科타격 우려

慶州大, 10日前夜祭 개교 78주년「東國祝典」을 위한「운영위원회」가 지난달 27일에 이어 30일에도 流會되어「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됐다.

이번 축전에 따른 예산내역을 보면 전야제 1백22만원, 백상연 5백4만원, 축전에 따른 소요경비 2백86만5천원, 기타 보조비 1백15만원등으로 학회및 단대에서일부 보조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운영위원들의 지원한계로 인해 난항을겪고있다.

이는 지난 1학기 예산편성 3·3·4의 집행부, 운영부, 학회의 비율로 빚어진 결과로 학회비에서 일부 지원시 만원, 축전에 따른 소요경비 2백86만5천원, 기타 보조비 1백15만원등으로 학회및 단대에서일부 보조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운영위원들의 지원한계로 인해 난항을겪고있다.

이는 지난 1학기 예산편성 3·3·4의 집행부, 운영부, 학회의 비율로 빚어진 결과로 학회비에서 일부 지원시 배율로 학산하여 보조할 경우 활용하지 못한 科에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27일에 이어 30일에 전야제를 필부로 11일 마라톤대회, 연극제, 모의주주총회가 12일에 경서대회, 경로잔치, 강연회에 이어 오후6시 백상연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 한편 경주대는 이미 10일 전야제를 필부로 오는 11일 마라톤대회, 연극제, 모의주주총회가 12일에 경서대회, 경로잔치, 강연회에 이어 오후6시 백상연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 한편 경주대는 이미 10일 전야제를 필부로 오는 11일 마라톤대회, 연극제, 모의주주총회가 12일에 경서대회, 경로잔치, 강연회에 이어 오후6시 백상연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

佛誕기념「학술세미나」열어

「宗敎와 遺傳工學」주제로

佛敎文化연구원

불교문화연구원주최 佛誕2천5백28주년기념「불교학술세미나」가 「동교와유전공학」이란 주제로 오는10일오전10시부터 본관 교수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현대의 생명창조에 대한 도전을 일부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등에 대해 金炳泰교수(불교과)를 비롯한 4명의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게 되며 이어 토론을 갖게된다.

◇발표자및 주제

▲金炳泰(불교과) 교수=불교에서 보는 유전공학▲邊鮮煥(감리교신학대학) 교수=기독교에서 보는 유전공학▲韓文熙(K成博士(화학과) 교수▲金惠英(동생과) 교수▲尹柱億(식공과) 교수▲琴章泰(섬문관대) 교수▲柳俊秀(한양대) 교수

◇토론자

▲權奇椋(불교과) 교수▲陸根培(불교과) 교수▲金銘善(화학과) 교수▲尹柱億(식공과) 교수▲琴章泰(섬문관대) 교수▲柳俊秀(한양대) 교수

"對話통한 自律이뤄야"

교내示威 관련 全體교수「決議文」채택

본교는 일련의 학생시위와 관련 전체교수의의 견을 수렴한「교수 결의문」을 각단대별 교수회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작성, 발표했다.

최근 교내에서 발생하고있는 일련의 학생시위와 관련해 일부 학생들이 행동에 대한 교수로서의 입장을 표명한 이번결의문은 같은날에 전달해줄것과 도덕적 당위성에 입각한 자율화를 이루고 학술활동에기반을둔 교권을 존중해줄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한 것이다.

이번 결의문에서 교수들은 학생신분으로 학업에 전념해줄것과 도덕적 당위성에 입각한 자율화를 이루고 학술활동에기반을둔 교권을 존중해줄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慶州大 전방교육 21日, 문산일대서

慶州大學 2학년「전방부대교육및 경계근무」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6일간 문산일대 ○경한 태도로 확답을 요구하며 示威벌여

"요구사항 받아들일수 없다"

「學自推」의 공식적인정받지못한 6개요구사항이학교측에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學自推」요구사항 산정성 3·3·4의 구사항이 거절되었다. 도서관 쇠창살 철거와 자유의벽 설치등 일련의 行動的 사태로 빚어진 지난달27일 시위에서 「學自推」는 「전진하는 새벽」이란 책자를 배포, 『대학로 등하지 않을시는 어떠한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확답을 요구했으나 「學自推」의 요구사항의 가부를 밝히는 자리에서 朴先榮학생처장은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공식표명했다.

○사단에서 실시될예정이다. 조국분단의 현실을체험하고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對軍 유대관계 강화등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이번 교육은 2학년중 교련교육 대상자와 83학년도 연기원 제출자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法政大 초청강연회

신입생 대상으로

법정대 주최「신입생초청강연회」가 김성식(경희대) 교수를 연사로 「大學人, 무엇을 할것인가」라는 연제아래 오는 3일 동국관(1301)에서 있을 예정이다.

현대 세계에있어 대학인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열리는이 번강연회는 國內 대학의 현실과그 진로방향을함께 다루게된다.

敎授동정

▲韓相範(법학과)교수=오는2일 여성단체 협의회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건전사회와 여성의역할」 주제논문발표 예정.

▲金甲周(경주대 국사학과) 교수=지난달 21일 한국사연구회 주최 월례발표회에서 「18세기 서울의 도시생활 양상」 주제논문 발표.

학생제군에게

대학의 이념과 사명은 학문연구와 진리탐구에 있읍니다. 그러나 대학은 결코 초국가적인기구가 아니며 국가가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성된 최고 학부입니다. 따라서 대학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도와 질서를 필요로하며, 모든 대학 구성원들에게는 그제도와 규범을 지켜야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읍니다.

최근 일부 학생들이 대학 자율성의 의미를 오해하여 규정된 제도와 학칙을 벗어나 수업과 연구에 도움이 되지않는 비지성적 행동에 지배되는면이 있어 모처럼 마련된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27일 오후에 있었던 일련의 시위와 관련하여 극소수의 학생들의 도서관 시설물파손과 총장실 출입문전 연좌내지 교직원에 대한 불손한 언동은 학생의 신분으로는 용인될수 없는 과격한 행동이었읍니다.

이에 본교 교수일동은 다음과 같이 그 심려와 충정을 표명하여 학생들의 성실한 면학과 자제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1. 대학생의 본무는 우선 대학이 정한 제도와 학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강의와 수업에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미 학생의 신분을 떠난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학생제군은 오로지 학업에 전념해 줄 것을 충심으로 권고하는 바입니다.

2. 대학의 자율화는 어디까지나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와 일정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질서란 학칙과 도덕적 당위성을 함축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타당한 공동의지의 규칙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자유는 오히려 충동에 지배되어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자율성도 대학의 모든 구성원의 공동의지에 근거한 대화와 자기 규제의 도덕적 당위성에 입각하여 정립돼 나가야 합니다.

학생들은 이점을 명심하고 교직원과 학생전원의 의지를 모은 가운데 인내와 질서 속에서 자율화를 추진해 줄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3. 대학에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학술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교수나 학생 누구에게도 인간생활의 터전인 국가와 사회의 지평을 벗어난 치외법권적인 무질서한 자유가 허용되어 있는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대학에서의 자율화가 철두철미 대학의 정상적인 학술활동을 돕기위한 수단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학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교권의 존중과 시설물의 애호는 대학인 모두에 의해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이를 파괴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책임을 스스로 지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학생들은 시시 각각으로 급변하는 오늘의 세계정세와 우리의 국가와 민족이 처한 역사적 운명을 깊이 자각하여 지혜롭고 자제력있는 지성인이 되어줄것을 진심으로 당부하는 바입니다.

1984년 4월 30일

동국대학교 교수일동

今週一言

정말로 깨침을 구하려면, 마음의 성을 지키고 마음의 성을 장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경건하게 이 마음성의 문을 열어, 그 깊숙한 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심신의 꽃을 공양하여, 환희의 향을 바치지 않으면 안된다.

<佛敎聖典>

보리수

부처님의 뜻

부처님은 분명히 역사적 인물이다. 그의 본명은 고타마 싯달타. 샤캬무니는 그의 출신부족의 이름이다. 부처님이란 호칭은 깨달음, 또는 깨달은 자를 의미하는 원어의 발음 붓다가 한자음을 거쳐 전용되어 이루어졌다. 漢譯은 소리대로 佛陀, 줄여서 佛이라 하고, 뜻을옮겨 覺또는 悟라고 표기한다. 따라서부처님은 특정 일물을 가리키는고유명사다.

즉 BC5세기경 오늘의 네팔북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고, 출가하여 성도한후 인도 동북부지역에서 중생교화를 한다가 돌아가신 실재인물을 가리킨다.

그런데, 인도사회에 있는 깊은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람은 다 부처님이 될 수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漢字 覺의 의미처럼 추상명사로 쓰여지기도 한다. 法身佛에서 부처님을 지시한는 佛은 바로비로 한다. 누구나 깨달을수

사설

開校 七十八周年

이제 금년들어 우리 東國大學校는 開校 78周年을 맞이하게 되었다. 되돌아보건대 그것은 참으로 長久한 시간인데 다가 우리 근세사의 곡절많은 歷史的 파노라마의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어서, 해마다 이맘 위에 우리 大學을 세웠을 때의 의미 하나 하나를 되새기게 한다. 人間의 나이 70이 되면 이를 일러 古稀라 할 만큼 한 人生의 年輪으로도 짧은 것이 아니려니와,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로 친다면 마음에 좇아 하고싶은대로 해도 마침내 법을 넘지 않는 나이(孔子)로 생각되는 것이 70의 의미이다. 그 70을 넘어서서 이제는 80년을 바라보는 것이 유서깊은 民族私學의 하나인 우리 학교의 연륜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大學들중 대부분 民立大學이신 官立大學이거나 民立大學이라 하더라도 設立年代가 얼마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本校처럼, 비극적 고난과 民族史的인 온갖 屈折로 이어져온 지난 78년을 民族私學의 바탕과 性格 그리고 그 의무를 포기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傳統을 계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꾸준히 그 發展化를 위하여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온 大學은 그렇게 이 아니다.

도대체 본교가 民族私學으로서 긍지를 갖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연륜에만 있는가? 아니다. 연륜을 따지자면 저 구라파의 역사깊은 伊太利와 獨逸의 대학들과는 도저히 比較할 형편이 못되고 우리나라의 대학 중에도 本校에 못지 않은 연륜을 지내온 대학이 없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本校가 종래 어떻게 구어온 民族私學으로서 긍지의 바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民族文化의 근간을 이루며 民族精神史의 中心軸을 이루어온 佛敎的 思想을 設立 이데올로기로 설정한 그 점에 있을 것이다.

불교적 사상이나 신앙관으로 대학의 이상과 현실은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민족사학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아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민族宗敎나 民族守護的인 宗敎들이 그 나라 民族의 文化를 병들게 만드는 경우도 비일재이며 宗敎的 優位主義가 그렇다면 과연 가장 중요한 學問을 退化시킨 경우 역시 敎化를 저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다면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東國精神은 무엇으로 表象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공허한 觀念의 거부를 통해 그리고 人間愛를 통한 실천적인 菩薩의 행로로의 實踐이 있을 것이다. 진보적 동국정신의 실천상을 우리는 또한 萬海의 종교·역사·문화 전반에 대한 신념에서 거듭 발견하게 한다.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知的 保守主義인 大學은 文化的 價習 또는 傳統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부정하기는 커녕 문화적인 전통을 수용하되 그것이 現在에 살아움직이는, 도저히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또한 안되는 맥우 뜻깊은 現實的인 價値規範으로 적극 수용한다. 萬海의 사상에서 우리는 民族的 文化的 전통이 살아 움직이는 현실적 가치로 수용되고 있음을 보게되는데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에 속한다. 大學은 또한 傳統的 價値規範의 존중과 함께 부단히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革新과 進步의 의지를 답보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전통적 가치를 살아움직이는 현실적 가치로 選別 수용할 수 있는 지적 보수적 개인이나 집단이 진정한 의미의 進步主義的 이상을 구현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진보적 동국정신의 실천상을 우리는 또한 萬海의 序文을 예비하기 위하여 쓰여진 찬란한 序文이다.

이제 東國人이 가야할 길은 저 멀고도 험란한 本文의 길이다. 그것은 너무도 자명하고 분명한 길이다.

사람의 실현, 이웃과 겨레에 대한 사랑의 실현을 전제로 모든 學問은 연구될 가치를 얻는다. 만해의 그 드거운 一生 좌표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 世俗의 무설고도 가공스러운 精神的 物質的 疾患에 대응하여 지식의 학문적 이상과 전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진부한 虛僞意識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만해에게서 우리는 그 치열한 修行者로서 藝術·宗敎·學問등이 거대한 건축물처럼 조화를 이루며 하나로 통합되어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승화된 東國精神의 表象을 볼 수 있다. 萬海가 곧 東國精神의 一脚柱인가? 아니다. 그는 이제 더 힘차게 전개될 東國精神의 위대한 端緖 또는 아직 作成되지 않는 本文을 예비하기 위하여 쓰여진 찬란한 序文이다.

이제 東國人이 가야할 길은 저 멀고도 험란한 本文의 길이다. 그것은 너무도 자명하고 분명한 길이다.

워즈워스의 문학세계에서 시간과 죽음의 문제

〈文科大교수·英文學〉 許天澤

박사학위논문 "Lucy poems에 관한 연구"의 발췌정리

워즈워스의 生死觀은 순환적 輪廻論

인간의 誕生은 잠과 忘却에 지나지 않아

Ⅰ

시인의 문학정신이나 철학적사고는 그의 특정작품이나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학작품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總體的이고 統合的인 體驗이나 정신문화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작품자체만으로 분석, 감상하려는 主知主義입장은 主情主義詩人의 경우 그 適用度가 희박해 진다. 「詩를 詩로서 (Poetry as poet ry)」란는 20세기 뉴-크리티시즘의 巨匠 엘리엇 (Eliot) 도 모든 작품은 역사나 전통의 배경없이도 이해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의 論文 「전통과 개인의 재능」에서 『그 어떤 藝術家도 시인도 독자적으로는 완전한 意味를 지니지 못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시인이나 예술가간의 상호 連繫性을 시인하고 있다. 특히 워즈워스와 같은 浪漫主義 詩人들은 「시를 시로서」의 입장보다는오히려 연계적 체험세계가 그들의 작품세계에 깊이 投影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그들은 自己表現의 눈도가 짙기 때문이다.

그러나 워즈워스의 문학세계는 대체로 主情的 세계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그의 체험세계는 主情의 세계를 초월한다. 하나 그의 철학적 思考가 孕胎되기까지의 시인의 체험세계는 그의 詩 「The Prelude」 「The Excursion」 「Tintern Abbey」 「Immortality Ode」 및 「The Lucy' Poems」 같은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Lucy' Poems」를 중심으로 워즈워스의 시간과 죽음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 보고져 한다.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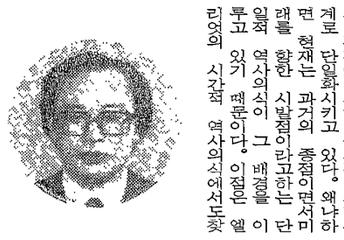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워즈워스는 그의 수많은 詩에서 자연과 죽음에 대한 어린이의 환상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특히 「Lucy Poems」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긍정적 확인으로 발전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점은 워즈워스의 시간에 대한 일정이 有限과 人間的 시간으로번 에서 영원한 自然的 시간으로 모되고 있음을 뜻한다. 인간적시간의 유한성은 詩人이 자연을배경으로하여 직관하려는데서, 영원한 시간으로 발전된다. 물론 시간과 영원간에는 절대적 區分이 없다. 이들은 상호 混合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시간을, 자연의 永遠性을 배경으로하여 直觀하려할 때, 자연은 영원한 생명체로서의 위대한 存在의 일부로 확인되며, 모든 삶과만상은 자연의 일부분으로 인식되는 데서 워즈워스의 불멸의 관념이 잉태된다. 더우기 이러한 詩人의 유혈투쟁의 대상에 대한 환상이나 직관이 神聖한 自然의 영역속에 소속될때 시인의 관념세계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다. 이것이바로 워즈워스의 순간적 영원성의 관념이다.

인생을 포함한 모든 자연현상은 divine life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영원한 神의 영역 속에서 그 존재가 인정된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神의 상호 연계성은 시인의 환상적직관에 근거한다. 흐르는 물도 종적 연계성위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물의 現代的흐름은 과거에 그 기원을두고 그 미래성은 현재에 그 始源을 둔다. 이것은 끝없는 변화를 동반한채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적 單一性을 말한다. 워즈워스는 과거 현재 미래를 시를 통해 단일화시키려 하는데, 시는 추억을 현재적 감상세계로 유도하기 때문에 고요 (tranquillity)속에서 잉태된다고 주장한다.

「The simplon pass」에서 폭포에 대한 시인의 직관은 현재적 순간을 과거와 미래에 대한 동시적 單一性으로 포착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상호연계성을 워즈워스는 삶에서 죽음, 죽음에서 영원으로 진행되는 유기적 생성과정으로본다. 「Tintern Abbey」에서도 현재의 자연풍경과 과거의 특정적 확인의 직관에 의해 동시적 체험세계로 단일화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는 과거의 종점이면서 미래를 향한 시발점이라고하는 단일적 역사의식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은 엘리엇의 시간적 역사의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워즈워스가 시간의 유한을 극복할 수 있음은 시인의 주관적 체험이 객관적 세계로 전화되기 때문인데, 이것은 곧 주관적 체험의 객관적 성취가 시간의 유동속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워즈워스는 과거·현재 미래를통시에 체험하는 순간을 「Spots of time」이라고 하면서 시간의 현장적 체험은 마음이 주체가 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그 예로서 「The Prelude」 11권에서 어느 색에서 처럼 자연의 모든 광경과 소리를 마시고싶다는 말로 이를 뒷받아 들일 수 있다. 워즈워스가 시간의 유한을 극복할 수 있음은 시인의 주관적 체험이 객관적 세계를 단일화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는 과거의 종점이면서 미래를 향한 시발점이라고하는 단일적 역사의식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은 엘리엇의 시간적 역사의식에서도찾을 수 있다.



Abbey」에서도 현재의 자연풍경을 5년전의 자연풍경과 회상의 직관에 의해 동시적 체험세계로 단일화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는 과거의 종점이면서 미래를 향한 시발점이라고하는 단일적 역사의식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은 엘리엇의 시간적 역사의식에서도찾을 수 있다.

▲여동생 도로시와 詩作생활을하며 지냈던 영국 Groasmere호수가에 위치한 Dove Cottage。 원내는 Wordsworth。

Ⅲ

「Lucy' Poems」에서 워즈워스는 죽음이 가져다 줄 이별의 공포에 젖게 된다. 그러나 그런 감정은 시간적으로 有限한 인간적 시간에서 영원한 自然적 시간으로 확대됨으로써 죽음은 자연의 輪廻的構造와 관계된다. Lucy의 죽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生과 死 즉 시간적 斷絶을 뜻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나 워즈워스는 그녀의 죽음을 인간적 有限性에서 보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자연에의 복귀로 본다. Lucy의 存在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자연의 領域속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다. 「Lucy' Poems」의 하나인 「Three Years She Grew」에서 Lucy는 혈육과 소나기속에서 자란 自然존재로서 바로 자연의 法과 衝動이다.

내 사랑하는것에 내 스스로(自然自身) ／法과 衝動이 되리라.

실지어 워즈워스는 그녀의 죽음을 달관하여 겪어야 할 필연적인 과정으로써 再生의 路程으로 본다. 비록 들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영원한 生의 존속은 살아있는 實在로서 자연의 輪廻에 의해 확인된다. 「A Slumber Did My Spirit Seal」에서…

그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들지도 보지도 못한다. /하루 하루 흘러가는 日月星辰의 긴 軌道를/바위와 돌과 나무와 더불어 돌고 있다.

또한 「Strange Fits Of Passion」에서

「아아, 어찌 할고나-」 하고나는 물었었다. /「Lucy가 죽는다는 말은 이를 뒷받아 들일 수 있다.

워즈워스는 Lucy의 죽음을 인간적 시간에서 영원한 자연적 시간으로 확대됨으로써 죽음은 자연의 輪廻的構造와 관계된다. Lucy의 죽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生과 死 즉 시간적 斷絶을 뜻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나 워즈워스는 그녀의 죽음을 인간적 有限性에서 보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자연에의 복귀로 본다. Lucy의 存在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자연의 領域속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다. 「Lucy' Poems」의 하나인 「Three Years She Grew」에서 Lucy는 혈육과 소나기속에서 자란 自然존재로서 바로 자연의 法과 衝動이다.

내 사랑하는것에 내 스스로(自然自身) ／法과 衝動이 되리라.

실지어 워즈워스는 그녀의 죽음을 달관하여 겪어야 할 필연적인 과정으로써 再生의 路程으로 본다. 비록 들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영원한 生의 존속은 살아있는 實在로서 자연의 輪廻에 의해 확인된다. 「A Slumber Did My Spirit Seal」에서…

그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들지도 보지도 못한다. /하루 하루 흘러가는 日月星辰의 긴 軌道를/바위와 돌과 나무와 더불어 돌고 있다.

또한 「Strange Fits Of Passion」에서

「아아, 어찌 할고나-」 하고나는 물었었다. /「Lucy가 죽는다는 말은 이를 뒷받아 들일 수 있다.

大學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9>

수도 서울이 大學敎育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시내 각대학의 재학생중 타지방출신학생의 50%내외가 서울에서 유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本校역시 올해 신입생의 40·2%가 지방 유학생이되고있다。특히 삼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수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 학생들에대한 기숙사확보는 대학교육의 늘을 향상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지방학생의 일부분이 친척집에서 주거할 경우 숙식비에 대한 부담은 다소 줄일수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학생이 하숙 또는 자취를 하고 있어 월 10만원 이상이 숙식비로 지출돼 생활비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따라서 시내 각 대학은 지방학생들의 안정된 주거지를 확보하고 휴식기능을 완비한 기숙사를 마련하기위해 노력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긴 하지만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있는 실정이다。

현재 본교에는 기원학사, 백산원, 근로장학사, 체육특기생장학사, 경후대의 金芝學舍등 총 5개의 기숙사가 명목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기원학사와 金芝學舍를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의 경우는 入舍자격이 극히 소수에 제한되고 있어 기숙사로써의 본질을 살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따라서 기원학사와 금장학사 노후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비롯한 제반여건과 환경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지방학생들의 「생활의 안식처」라 할수있는 본교 기숙사는 中區 草洞에 소재했으나 극심한 소음과 공기의 탁함들의 공해문제로 지난 69년 현재의 개운사옆으로 이전, 대지 6백여평을 갱신사톤부터 빌려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건립했다。기원학사의 규모및 운영방식을 보면 연건평 3백75평, 24평의 규모로 법당, 식당, 세면장, 휴게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위락시설과 후생시설이 미비한 현편이다。

이런 실정임에도 본교에서는 금년부터 지방학생에 대한 혜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40명 모집정원에서 33명을 늘려 총 73명을 입사시켜 2인1실사용에서 현재의 3인1실의 체제를강추었다。

이로인해 휴식공간의 절대부족은 더욱더 가중되었다。그나마 3인이 방1개를 사용하게됨에 따라 金芝學舍들은 더많은 불편함을 겪고있다。

기원학사의 운영은 사생장 1명(4학년) 총무1명(4학년) 위원2명(1·2학년 각1명씩)으로 구성된 「金芝自治會」의 주관아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있으며 모든행사를 자치적으로 처리해나가고 있다。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학생 기숙사인 기원학사는 설립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있어 그답변과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하겠다。「기숙사가 세워진 토지가 개운사 소유로 되어있기때문에 매년 2백여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있어 지금의 소규모 기본건물로는 더 이상의 복지시설을 마련하기 힘든다는 기숙사복지시설의 낙후성에 대해 관재과의 한관계자는 「지금의 낙후대로의 이유를 설명하고있다。

또 金芝長인 김재철(불교학과·4)군은 「가족적인 분위기속에서 원만한 문답들에 열중할수있는 부대시설을 갖비하고있는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本校 기원학사는 미비한 복지시설만으로 10년동안 사용해와기 존건물의 노후성과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있어 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당국에서는 83년말에 천여만원의 돈을 투자해 찰흙, 전기배선, 수도관, 식당들에 부분적인 보수작업을 하긴 했으나 기존건물 자체의 구조가 워낙 비효율적인 삼태라 그 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렇듯 매년 기존건물에대한 부분적인 보수작업만 실시하는 것은 기숙사로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있다。그러나 기숙사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설립이후 만2년을 거치는 동안 안착되기 위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그러나 결코 성실한 운영이었다고는 할 수없다는게 現舍生 대부분의 중론이다。

설립당시부터 男·女學生을 동시에 수용해 복지시설의 사용률에 많은 폐단을 낳고 있다。

大學人의 자율성이 몹에 채 배이기도전에 야기되는 이성간의 혼숙사로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있다。그러나 기숙사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설립이후 만2년을 거치는 동안 기숙사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설립이후 만2년을 거치는 동안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그러나 결코 성실한 운영이었다고는 할 수없다는게 現舍生 대부분의 중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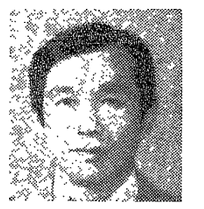
설립당시부터 男·女學生을 동시에 수용해 복지시설의 사용률에 많은 폐단을 낳고 있다。

大學人의 자율성이 몹에 채 배이기도전에 야기되는 이성간의 혼숙사로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있다。그러나

20세기 世界文學의 흐름 >6<

「글쓰기의 모험」 계속 진행중

고광단


<흥익대교수·佛文學>

프랑스 문학의 기원은 약 천년전인 십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오늘날 말하는 소설다운 이야기가 시작된 시기는대개 18세기 말로 잡는다. 즉 아베 프레보의 「마농 레스꼬」에서 보듯이 꿈꿀은 사랑과 이국적 정서는 로맨티즘 (낭만주의)을 싹트게 한다. 위고를 정점으로 계속 되어온 로맨티즘은 한편으로 꿈과 동경에 대한 환멸을 수반하면서 점차 그 방향을 현실사회로 돌린다. 전반기 19세기 사회의 호적들이라 일컫는 발자끄의 「인간희극」과, 시대상과 인간상이 아울러 그려진 스탕달의 「적과흑」을 거친다음,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에 이르러 로맨티즘은 완전히 그 막을 내리게 된다. 플로베르는 더이상 환상이나 사회를 문학의 주제로삼지 않았다. 그는 되도록 최소한의 소재를 가지고 허물어져가는 현실을 묘사하려고 했다. 그에게 유일한 생각의 표현방식이었던 것은 경영원설과 다윈의 진화론을 작품에 적용시켰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연주의의 표현방식에 식상한 문단은, 시에 있어서 말라르메·베를렌느·랭보같은 상징주의 작가들을 낳았고, 소설에서는 프랑스·뻬에르 로띠·뽈 부르제와 같은 폭자가 내지는 휴이다. 로망티즘의 붕괴는 모빠상의 「여자의 일생」과 함께 한번 더 확인되면서 사실주의는 자연주의와 동반관계에 들어간다. 졸라는 「인간희극」을 더욱 샐를학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뻔느의 환아나톨 프랑스·뻬에르 로띠·뽈 부르제와 같은 폭자가 내지는 휴머니스트, 모랄리스트들을 배출하였다.

20세기의 초반은 사상적으로 종래의 실증주의와 이에 반대한베르그송 학파, 그리고 이 두진영을 절충한 브룬쉬빅과 뽀엥까레 학파가 활력소의 역할을 한 시절이다. 그러나 문학쪽에선 여전히 휴머니즘이 깊게 뿌리박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인생탐구의 작가 프루스트와 지드가 그렇고, 쌜룽적 휴머니즘을 보여준 쌩 떽쥐뻬리와 앙드레 말로르, 그리고 신앙과 고뇌를 절규한 폴랑소와 모리악과 베르나노스등이 모두 휴머니스트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작가들은 아직도 전 세기의 작가들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으니, 소설속에 일정한 줄거리를 갖든다는 점·대상을 의인화한다는 점·특정관념이나 사상을 내포한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프루스트와 외국작가인 조이스, 포크너, 카프카들은 과거와는 크게 달리 비논리적이고 부조리한 세계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생긴다. 다시 말하면 데까르뜨나 헤겔에서 비롯된, 세계와 현실의 논리적 인식에 대한 불신이 대두된 것이다. 현상학이란 학문은 우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현상에만 인식의 근거를 두려고 했다. 훗설에 따르자면 현상학은, 불변하는 실재를 인정치 않고 직접 경험한 바에다가 주어진 대로의 현상을 기술하는 하나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현상학의 영향을 받은 싸르트르는 인간과 세계의 단절을 작품「구토」에 나타내기도했다.

현실의 論理的認識에 대한 不信대두

문학 창조에 있어서 인간과세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장 값진것으로 알았던 싸르트르가, 이같은 현상학으로부터 지대한영향을 받았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현상학 속에서는 의식과 사물이 융합되고 의식의 우월성과 환에 늦게하고, 나아가 독자도설 화자와 함께 나름대로의 자유를 행사하게끔 한다는 말이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의인화되던 대상은 부서져 버리고 일관된 논리는 와해되며 비연대기적인 시간으로 인하여 줄거리 마저 사라져 버리는 경지에 다다른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장 받았다. 〈모친사망. 내일장례. 조의를 표함〉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알수 없다. 아마도 어제였겠지』

「이방인」에 나오는 첫 귀절이다.

「오늘」「내일」「어제」 란는 시간이 섞여나옴으로써 전통소설에 익숙한 독자를 혼란 속에 빠트린다. 여기서의 시간은 이미 사회적 의미 부여로서의 시간은 아닌 까닭이다. 발자끄 때에는 시간이 곧 인간을 완성시켰고, 인간의 운명까지 결정짓는 요소가 시간이었다.

그후로 베르그송 철학은 인간과 의미부여와의 관계가 분리되는 시간을 탄생시킨다. 그리고주토와 부조리로 대변되는 실존주의 문학에 이르면, 시간의 변화와 함께 사물과 인간은 서로판 얼룩을 지니게 된다. 즉 발자끄의 인간=사물의 일체감은 인간·사물의 별거상태로 달라지며, 다시 누보 로망에 이르면 인간과 사물이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상황으로 바뀌고 만다. 아울러 연속적이고 연대기적이던 시간은 불연속적이고 비연대기적인시간(실존주의)으로 머물다가, 시간의공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은 사차원의 세계 (누보 로망)로 돌아선다. 사차원의 세계에서는 「인간=사물」의 등식 대신에 「새로운주=렌즈」라는 등식이 자리잡는다. 렌즈에는 물론 감정이나 사상따위가 묻어있을 여지가 없을것이다. 「이방인」에서의 「오늘」이 「질투」에서는 「지금」이라는 단어로 바뀐 모습을 보트 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다시 문학의 본령인 글자의 학문을 한자로는 「文學」이라고 쓰며, 프랑스 말로는 「Science de lettres」라고 하는 지극, 모험의 글쓰기가 아닌 글쓰기의 모험은 계속 진행중이다. 구조의 형태와 텍스트에서의 의미 산출 작업이 마무리 지어지는 창조적 인식작업을 새로운 내용을들어 버린 한생의 연인들 무본질한 서구문화의 수용으로 혼란한 문화계에우리만의 삶과 예술을 지향하는 창조적 인식작업을 새 질 다음 세기 초엽이면, 아마도 새로운 내용들이 나타나 보물처럼 쏟아지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오늘의 책」

창간호

계간 문화비평지 「오늘의 책」 창간호 1984·봄호가 발간되어 문화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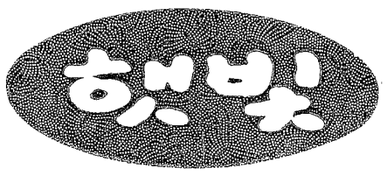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줄기차게 전개되고 있는 이 땅의 실천적 문화운동 및 출판운동을 수렴하고 심화시키는 견인차로서, 우리시대의 모든 문화적행위및 그 의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시킬 뿐 아니라 주체화시키고자 한다.

이번 창간호에는 특집 「우리시대 문화운동의 이념과 지향」과 서평및 문화정보 등을 다룬다.

실천적 문화운동 수렴

조각들로 이루어진 햇빛들의 노래

부서지는 햇빛들의 환희의 빛깔


<햇빛>

<수필>

우산을 받고 장화를 신고 안개꽃 한아름 안고 가는는 길이었다. 알맞은 목소리로 노래라도 부르듯 그렇게 비는 내리고 있었다. 아 이 좋은 비. 만인에게 내린는 비라지만 내 차지인 양 좋다. 축축히 젖은 나무가 걸은 몸매를 드러내고 희디 흰 꽃잎들은 신부의 드레스장식보다 눈부시다. 발 아래를 내려다 보니 귀여운 물결들이 밀리고 있다. 그렇게 걸었다. 한참 동안이나. 어느 회색문이 나타난다. 아 드디어 나타났군. 살짝밀어 본다. 꿈쩍도 않는다.

힘껏 밀어본다. 자 열렸다. 들어 가자. 먼저 우산을 접고 장화를 벗는다. 실내의분위기는 교향악 처럼 장중하다. 그곳에 안개꽃은 너무잘 어울리는 신비의 악세사리. 가라 앉는 마음, 음영깊은 그 공간의 빛깔이 춤다. 공간이 공간으로 존재 해 줄때 나는 자유를 느낀다. 꽉 채워진 공간은 이미 그 존재를 상실한 것이고 가늘성 마저 빼앗긴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다. 자 음악을, 가장 사랑하는 순간을 위하여, 눈을 감는다.

영원으로 내 닫는 나의상념 나래를 펴자. 음악은 절정으로 흐르고 있고 나의환상도 더 할 수 없이 아름답다. 떠오르는 날개들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때 여는때 건 단지 단일음일 뿐이야. 웬 일이람 나의 성을 침입하는 거치른 발분격은, 그 소리는 창문으로 나를 유인해 갔다. 그리고는 가볍지 않은 두손으로 창문을 열게했다.

어느 새 비가 개이고 하늘은 회색빛 대신 옥색빛을 띄우며 우아하게 창을 물들이고 있었다. 서서히 열리는 창문 특사이로 밝고 가벼운 색채가 소리 없이 날아 들어온다. 그 빛깔은 투명하고 화사하며 청랑하기 그지없는 작디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진 환희의 빛깔이었다. 그 조각들은 이내 나의 손에 어깨에 내려 앉아 바삭 바삭 소리를 내고 영롱한 눈빛으로나를 바라보고있었다.

또 다른 그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밝은 세상에서 튀어오르는 햇빛들의 소리, 젊음의 소리였다. 소원을 이루는 애기가씨, 오늘을 크게 떴다. 그리고 그 향기를 들여마셨다. 그것은 밝음의 세계, 환희의 세계, 생명의 세계 이었다. 난 새삼 조용히 나의 공간을 뒤 돌아 본다. 음악은 아직도 장중하다 못해 무거운 몸으로 흐느적거리고있었고, 짙더 짙은 음영의 빛깔은 無, 그 자체로 버티고 있었으며, 희디흰 안개꽃 무리는 창밖한 얼굴로 나를보고 있었다. 아 이게아닌데, 진짜 이게 아닌데, 난 두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고 그 한참이란 시간은 나를 흔한 이에 빠뜨리고 나를 비웃고 있었다. 안돼 일어서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자. 저 밖은 세계로, 저 명랑하게 부서지는 햇빛들의 노래 속으로 설레이며 내 닫는 내 발자국 마다에는 바삭거리는 햇빛들이 한줄씩 달겨 나왔다.

권 효 숙
〈사범대 국교과〉

꽃에게

朴 燦

꽃이여
아름다움은 내 눈에 비친 그림자
내 마음에 젖어드는 너의 향기인지
슬퍼라 아름다움은, 꽃이여

너의 몸짓은 평강 바람이어
다만 흔들릴 뿐이였는데
너를 흔들게하는 것은 내 마음이었나

그 마음 한복판
달이 떠 오르고
기러기 몇마리 갈 之자로 날아오르는
새벽녘
바람소리

〈同門·詩人〉

▲48年 전북 정읍生
▲72年 본교철학과 卒
▲83年 4月
「詩文學」誌추천
「上里마을 내리는안개는」外
▲83年 9月
「詩文學」誌 추천완료
「아이들은 돌을 줍기 시작하였다」外
▲現 「東江詩」同人

文化短信

제1회 대한생 논문 현상모집

월간 「廣場」 주최로 대학인의 예지와 탐구혼 진작을위한 제1회대학생 논문현상모집이 「현대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오는 9월15일까지 있게된다. 월간 「廣場」 주최로 실시되는 이번 논문현상모집은 2백자 원고지 70매내외로 최우수작 1편에 1백만원, 우수작 1편에 50만원, 가작 2편에각각 20만원씩의 상금이주어진다.

메아리

▲인류 사회는 어떻게 보면 발전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오히려퇴보하고 있다는생각이들때가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은 상당히 윤택해졌지만, 상황주의 없을 정도로편리하고 유익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에게 위협을 주는 분위기는 날로 고조되고있는 실정이다. 예컨데대기권에서의 핵실험은 금지되었으나 지하실험은 계속되고 있고, 제네바의 군축회의나 UN총회가 되풀이되서 제기한 핵실험금지 요구가부시되어온 것만으로도 가히 짐작할수있다.

▲최근 美·中共간의 수뇌회담에서 美·中共간의 관계개선을 비롯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정세를 광범위하게 논의했지만 중동의 전략적 함수가닭긴 2백억달러규모의 핵협정을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선진기술 도입보다는 아직까지 톱니바퀴에 끼어들지 않고 초연하게 자기 노선을 밝아가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것이기도 하다. 특히 3대 강대국의 눈치보기 속에 우리가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에 역행할수도 있는 양국회담이 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상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주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것이다. 이해를 주는 이들에게 이해를 주는지 어떤 압시하겠다. 한번생각해봐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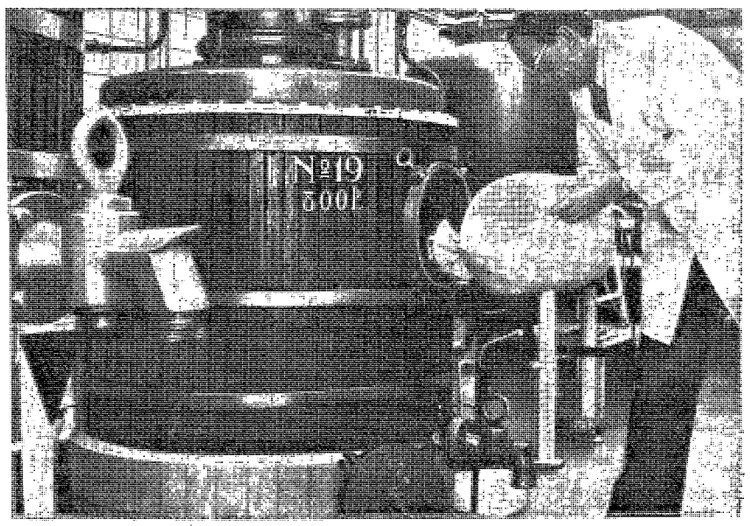
實利追求

〈養心〉

▲인류 사회는 자칭달지와 대만분제를 표면화시키지 않는 전한과 전원의 「더불어 사는 기술」이라는 일련의 「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것은 아니런가 한다.

▲한편으로 日本의 각인들이 레이건의 중동방문을 협조와 불협화음이 한데 어울린 우정의 만리걸」로 보고 對蘇분제등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차가 많은것을 중점보도 했는 실정이다. 미국은 실리적 외교 유대, 전략적 측면에서 커다란 異見이 엄존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실감한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理念보다 실리추구에중점을 두고있는현실정에 비춰볼때 모든 사회가 다른 一國에 해독적 영향력행사 보다는 自國의 입장이 이해를 고수하려는 있다. 더욱 그렇다고 우리의 운명을 他律에 그대로맡기기 초하여서 아니라 强大國의 논리에 의해 민족적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약보다 진(GIN)으로 더 성공한 쥬니퍼 베리 이야기



네덜란드인이 만들고

1550년 가을, 네덜란드의 명문 라이덴 대학 의학연구실. 실비우스(Sylvius) 교수는 쥬니퍼 베리(Juniper berry: 두송나무열매)로 건위, 강장제를 만들고 있었다. 쥬니에브르(Genever)로 이름지워진 이 약은 약으로써의 효능뿐 아니라 삽상한 맛, 솔잎의 풋풋한 향기, 그리고 상쾌한 취기 때문에 대학연구실의 담을 뛰어 넘어 순식간에 전 네덜란드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영국인이 세련되게 하고

백년후, 이 술은 도버를 건너영국에 상륙했다. 쥬니퍼(Juniper) 또는 드라이 진 (Dry Gin) 으로 이름이 바뀐 이 술은 당시 대륙으로부터 수입되던 브랜디를 대체하면서 급격히 서민의 술로 성장했다. 값은 싸지만 일단 취하면 귀족이 부럽지 않다는 뜻에서 Royal poverty라는 애칭을 얻은 이 술에 대해 영국 왕실은 Gin Act를 제정, 소비 억제를 시도했으나 실패. 영국인들의 영혼에 깊은 영감을 던져주던 이 술을 마실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었다.

실용주의적인 영국인들은 대륙에서의 거칠고 조잡한 증류기술을 개량, 세련되고 산뜻한 런던 드라이진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미국인이 열광들 주었다.

영국에서의 성장기를 보낸 드라이 진은 미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치장을 했다. 세계인의 술 드라이진칵테일이 바로그것이다. 빛깔과 향기, 다양한 맛에 있어 전혀 새로운 발견을 한 미국인들은 드라이진이야말로 신이 준 최대의 선물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이제 중후한 맛의 「네덜란드 진」과 도시적인 세련된 맛의 「런던 드라이진」으로 구별되는 진(Gin)은 칵테일의 왕자로서 세계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대학가의 낭만 「런던 드라이진 쥬니퍼」

1980년 주식회사 진로가 영국의 세계적인 드라이진 메이커 Hedges and Butler사와 기술제휴로 개발한 「런던 드라이진 쥬니퍼」는 이땅에 새로운 음주문화를 싹트게 했다. 관광호텔에서부터 유명해진 「쥬니퍼」는 그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외국산드라이진을 뒷전으로 물러서게 하면서 이나라 드라이진의 대명사로 자리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대학가에서도 젊음의 열기와 낭만, 고뇌와 희의의 반려로서 「쥬니퍼」를 빼놓을수 없게 되었다.

株式會社 眞露